

진실한 마음은 시방에 두루 통해

19면에서 계속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한 것은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처럼, 오관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지만 말입니다.

자기가 이념까지 지내온 것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알면 부처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 실상이 아는 거고, 딴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어라 이겁니다. 자기가 걸어오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역력히 알고 있었을까? 그 아는 놈이 누굴까? 그 아는 놈이 바로 자기의 생명수와 같기도 하고 바로 컴퓨터 같기도 하고, 자기의 영원한 주인 공이라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이름이지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없으면서 바로 에너지로 충당이 돼서 컴퓨터처럼 책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놓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그 알고 있는 자기가 바로 공했다고 했습니다. 체도 없고 빛깔도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다 놓으라 이거예요. 모든 걸 공이 자 색이 색이 자 공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짢은 일도 보고 좋은 일도 보는 거고, 그 좋은 일 언짢은 일을 다 한데 합쳐서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달프다 고달프지 않다. 좋다 나쁘다. 나는 못살겠다 나는 괴롭다. 정말 주먹같은 분노가 치밀어 온다.' 이런 거를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알아요. 자기가 한 해, 하루 24시간 걸어오는 것을 자기가 너무도 잘 알아요. 남은 몰라도 말이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명수와 같은 자기 에너지가 나 하나의 에너지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전체에 다 있으면서 차이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걸 아는 그놈이 전체를 책정해서 모든 걸 하고 있거든요. 오관을 통해서 컴퓨터처럼 들이고 내고 하는 능력도, 또 탐지기도, 텔레파시도, 통신도, 무전도 그놈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 걸어온 것을 저녁 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는 그놈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 한 놈이 벌써 그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놈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림 · 최주현

자불은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법

자력 길러 살게 하는게 마음공부

놓았다 놓지 않았다가 따로 없다. 그러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 진실로 믿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운용해나갈 뿐이다.' 하는 믿음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울때 힘이 돼 주고 싶어요
저는 중3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종교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종교인들의 행실, 또는 자기가 그 종교를 통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해답의 실마리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저에게는 이겨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면 서로 그저 조용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내 마음에서 알아서 할 뿐이다. 그 자리에서는

놓았다 놓지 않았다가 따로 없다. 그러니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 진실로 믿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운용해나갈 뿐이다.' 하는 믿음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울때 힘이 돼 주고 싶어요
저는 중3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종교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종교인들의 행실, 또는 자기가 그 종교를 통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해답의 실마리를 얻고 싶어서입니다. 저에게는 이겨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면 서로 그저 조용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내 마음에서 알아서 할 뿐이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덕택에 제 몸은 온 일주일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담아두는 것만큼 그들은 저를 안 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제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것이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어쩔 때는 끝없는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 때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스스로없이 마음의 짐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이 저를 찾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주위에서 묵묵히 웃으며 지켜보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려 했지만 쉽게 변하는 감정에 스스로 힘들어 그러지도 못하고 맙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나 봅니다.

스님, 제가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한 사람으로 기

억되고 또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 꼭 답변해 주시리라 믿으며 글을 마칩니다.

우리 학생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려는 마음이 참 가박하군요. 내가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바리때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하도 가난해서 스님들께 드릴 건 없으니 남의 집 보리쌀을 씻어주고는 그 보리쌀 드물을 얻어다가 아침에 푹푹

- 체도 없고
- 빛깔도 없이
- 모든걸 다 아는
- 근본주처 공하니
- 그 공한 자리에
- 모든 걸 놓으라

끓여서 스님들 오시면 드리겠다고 부뚜막에다가 먼저 한 주발을 퍼놓고 있었습니. 그런데 어떤 한 스님이 바리때에다 부어주는 그것을 받아먹으며 그런 사정을 알고서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나무라도 한 집 해다 줄 양으로 하루종일 나무를 해서 한 집 잔뜩 짊어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

그런데 오다가 은사 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은사 스님께서 "너는 그 나무를 어디로 가지고 가려고 해 왔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 사실 얘기를 했습니. 그 은사 스님께서는 대신사이시며 아주 귀중하신 그런 분이셨습니. 그런 스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 그렇게 지혜가 부족하냐? '참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지혜가 스스로 늘지 못했구나." 하시면서 작대기를 집어서 그 제자 정강이를 어떻게든 세계 후려쳤던지 나뭇집하고 사람하고 같이 그냥 굴렀단 말입니다. 구르는 도중에 스님이 악을 쓰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이놈아!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를 하겠지. 나무 한 집 갖다가 준들 태워버리면 그분일 것을 그것도 보시라고 하느냐? 이놈아!" 하고 악을 쓰시는 바람에 그냥 내리 구르면서 그 스님이 훌쩍이 깨우쳤다는 얘깁니다.

그 스님이 구르면서 한생각을 깨우친 것이 그 집에 무주상 보시가 돼서 그때부터 그 집의 형편이 풀리더니 남의 마

음을 살던 것이 마음을 그만 두게 되었고 부자로 잘 살게 됐더랍니다. 그러고는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뭐든지 한조각이라도 생기면 반조각은 스님들한테 올리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가다 그 뜻을 알았습니. 말하자면 그분도 깨우쳐가지고 나중에 몸을 벗고 나서는 다시 그 도량으로 들어와서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한푼 한푼 주는 거, 쌀 한 가마를 준다 하더라도 그렇고 집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런 도리를 모르고 한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공덕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게 돈이 있다면 남을 못 주는데 돈이 없는 까닭에 남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줄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준다면 항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로 나뉘어져서 돈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고 저 사람은 내게 더 이상 받을 게 없고, 그리고 주는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어 공백해지고, 그러면 그 마음까지도 공백해지게 됩니다. 그걸 그냥 돈이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쥐도 쥐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도 들어도 늘어나지 않으니 내가 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한테 그것을 다 꺼내서 줄 수 있고, 없어도 겁이 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 단지 하루 이틀 먹을 음식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이 이 마을 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떳떳해 진다면 다가오는 모든 인연에게 마음대로 지극하게 한생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해요. 그렇게 지극하게 해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근본과 풀 아니게 전달이 돼서 모든 것이 좋게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이요. 또한 이 마을의 도리는 묘하게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마음을 자주 내면 저 사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이 함께 좋아진다고 슬퍼할 일도 없고 내가 상대를 염려해주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무엇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진실한 마음이면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공부란 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자랄(自活)하는 공부이고, 또한 어디에 세워봐도 살아갈 수 있는 자력(自力)을 기르는 공부예요.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어려운 얘기도 있었지만 공명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런 기특한 마음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도 밝아지고 주위에도 도움이 되기 바래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물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지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연화의 세계(大·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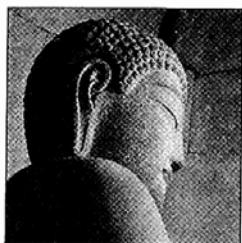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굴암(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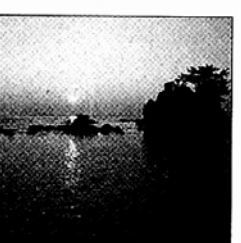
백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8절 대지 마닐라(14매)

종류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흥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마죽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 사진 : 안장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두보적인 안장현고수의 작품이다
안고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굴, 국립공원, 석굴암, 영경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한 한국 사진작가 협회의원 및 대한 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대(30×31cm) 국6집, 가격: 1,600원
소(26×26.5cm) 사륙12집, 가격: 1,400원
■ 매 수: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S프링)
■ 주문부수: 100부 이상
■ 미니 차질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